□ 解 說 □

최근 油價하락의 배경과 그 영향

Ⅰ. 머리말

지난 1월말 OPEC(石油輸出國機構)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제73차 임시총회를 열고, 3일간의 격론 끝에 輕質油價格의 인하를 통한 油種間 價格差의 축소 조정조치를 결정하였다.

油種間 價格差(differential)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던 것이므로 이의 축소조정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基準油種인 아라비안 라이트(Arabian Light 34°)의 公式販賣價格(official selling price)을 이번 회의를 통해 배럴當 28달러로 1달러 내림으로써 사실상의 油価 인하를 단행하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OPEC는 1960년 창설 이래 1983년 3월에 이어 史上 두번째의 油價 인하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에 대하여 石油전문가들은 OPEC이 중대한 정책전환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이는 原油의 공급과잉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産油量의 감축을 통하여 油價방어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취해 왔던 基準油價 고수정책이 이번의 조치로 후퇴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10여년 동안의 油價동향을 보면, 70년대중 두차례의 石油波動을 거치면서 油價 상승세만 보여 왔었으나, 82년 이후부터 약세로 돌아서게 되었던 바, 基準油種인 아라비안 라이트의 공식가격은 83년 3월에 배럴當 34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된 후, 이번에 다시 28달러로 인하됨으로써 2년이 채 못되는 기간 동안에 油價는 배럴當 6달러나 하락하였다. 더우기 現物市場에서의 油價時勢는 82년 이후 公式價格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거래되어 왔으며, 많은 産油國들은 공공연하게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같은 모든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실질적인 평균油價수준은 배럴當 27달러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原油市場의 공급과잉현상이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石油市場을 둘러싼 많은 經濟外的 요인들의 돌발적인 사태변화가 없는 한 油價는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油價의 변동은 세계경제의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本稿에서는 최근의 油價下落推移와 그 배경이 되는 요인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油價하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Ⅱ. 油價의 하락과 그 배경

1. 최근의 油價동향

83년 3월 런던總會에서 OPEC는 史上 최초로 公式油價를 배럴當 5달러(아라비안 라이트 基準油價)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이후로도 國際原油時勢는 지금까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 이는 原油市場에서 공급과잉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OPEC는 공급과잉현상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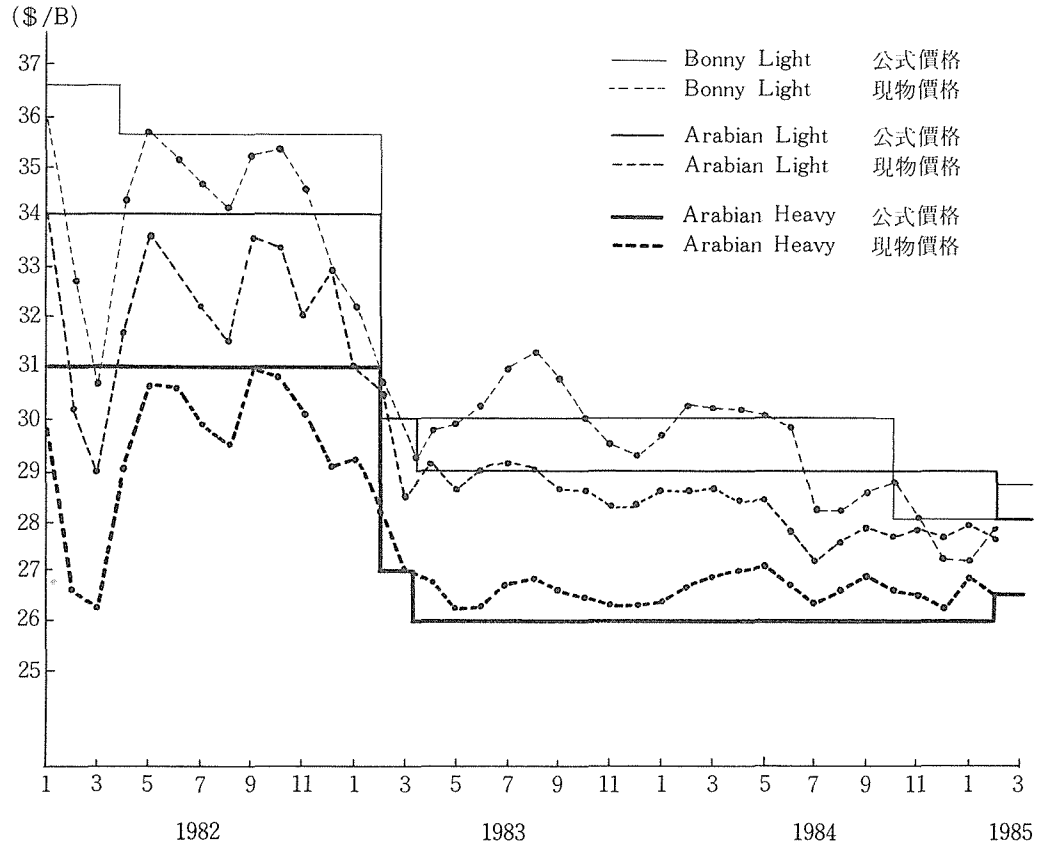
84년 10월말에는 産油量감축조치를 추가로 단행하였으며, 이어 같은 해 말에는 基準油價는 고수되어야 한다는 방침 아래 重質油의 公式販賣價格을 인상함으로써 시장에서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輕質油의 수요증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輕質油의 가격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85년 1월말에는 輕質油價格의 인하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이하에서는 83년 3월 이후 최근까지의 油價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輕質油의 경우 이 기간중 대부분의 油種에서 현물가격이 공식가격을 하회하였다. OPEC의 代表油種인 사우디아라비아産 아라비안 라이트油의 공식가격은 83년 3월의 OPEC총회에서 배럴當 29달러로 책정되었으나, 現物市場에서는 83년 9월 이후 84년 5월까지 28.26~28.61달러 線에서 거래되었으며, 84년 6월~1985년 1월 기간중에는 27.24~27.89달러 線으로 하락하여 거래되었다. 한편 공식가격이 배럴當 30달러로 책정된 나이지리아産 보니 라이트油는 현물시장에서 84년 5월까지는 대체로 公式價格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나, 同國의 외채누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관도입이 어려워진 이후부터는 續落勢를 보여 85년 1월중에는 27.20달러 線에서 거래되었다.

OPEC産 輕質油의 현물가격이 공식가격을 하회하면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까닭은 뒤에서 詳述할 石油市場의 전반적인 위축 이외에도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첫째는 非OPEC산유국, 특히 北海산유국이 OPEC의 價格維持政策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와 英國이 84년 10월 北海産油의 공식가격을 경쟁적으로 배럴當 1.5~2.0달러 인하하

〈그림-1〉 주요 油價變動 추이



여 현물가격과 같은 수준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北海産 브렌트油의 공식가격이 이와 같이 인하되자 競爭油種을 생산하는 나이지리아도 OPEC公式價格体系에서의 이탈을 불사하면서 보니 라이트油의 공식판매가격을 84년 10월중 배럴當 28달러로 2달러 인하하게 되었고, 이로써 OPEC의 公式價格体系는 크게 동요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는 精油施設이 현대화되고 정제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重質油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輕質油가 약세를 보였던 기간중에도 重質油의 현물가격은 공식가격을 상회하였던 바, 이는 重質油에 대한 수요증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사우디 아라비아産 重質油인 아라비안 헤비油의 공식가격은 83년 3월에 배럴當 26달러로 책정되었지만, 현물가격은 그 이후에도 공식가격을 계속 상회하여 84년 4～5월중에는 27달러 線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84년 1월 현재에는 26.9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OPEC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油價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84년 10월말 제네바에서 제7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同 總會에서는 油價인하 대신 産油量의 감축을 통해 공급과잉현상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基準油인 아라비안 라이트의 公式價格을 배럴當 29달러 線에서 고수하고, 대신 産油 쿼터를 17.5백만b/d에서 16백만b/d로 1.5백만b/d만큼 감축함으로써 油價 및 石油市場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회의에서 U.A.E.를 비롯한 輕質油 생산국들은 重質油와의 가격차문제도 함께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이 문제를 검토할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는 선에서 타결되어 다음 회의로 넘겨지게 되었다.

원래 OPEC公式價格体系에 있어 輕質油와 重質油間의 가격차를 아라비안 라이트와 同 헤비油 기준으로 배럴當 3달러나 되는 큰 폭으로 결정한 것은 83년 3월 런던총회이다. 이때부터 油種間 가격차문제는 후에 분쟁을 야기시킬 素地를 갖고 있었는데, 油價의 인하폭을 실세와 거의 일치시킨다는 원칙때문에 重質油와 輕質油가 사상 유례없이 큰 폭의 가격차(배럴當 3달러)를 보일 때 이를 그대로 公式價格에 적용시켰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表－1〉 OPEC의 産油 쿼터 內譯

(單位：천b/d)

	84. 11. 1 ~현재	84. 11. 1 이 전	減産量(%)
알 제 리	663	725	62(8.55)
에 콰 도 르	183	200	17(8.50)
가 봉	137	150	13(8.67)
인 도 네 시 아	1,189	1,300	111(8.54)
이 란	2,300	2,400	100(4.17)
이 라 크	1,200	1,200	…
쿠 웨 이 트	900	1,050	150(14.29)
리 비 아	990	1,100	110(10.00)
나 이 지 리 아	1,300	1,300	…
카 타 르	280	300	20(6.67)
사우디아라비아[1]	4,353	5,000	647(12.94)
U A E	950	1,100	150(13.64)
베 네 수 엘 라	1,555	1,675	120(7.16)
計	16,000	17,500	1,500(8.57)

註：1) Swing producer로서 同限度內에서 世界石油수급상황에 맞추어 산유량을 조절토록 되어 있음.

〈資料〉 Middle East Economic Survey, Nov. 5, 1984.

발생하였다. 통상적인 現物市場에서의 輕質油와 重質油간의 가격차는 보통 배럴當 1달러 수준을 거의 넘지 않았었다.

이와 같은 가격차문제는 精油施設의 현대화와 함께 重質油의 정제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重質油에 대한 소비국들의 選好경향이 높아짐으로써 더욱 그 조정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되었는데 OPEC는 油種間가격차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84년 연말 다시 제네바에서 총회(제72차)를 열고 가격차를 소폭 축소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基準油인 아라비안 라이트의 공식가격은 배럴當 29달러로 유지하되 重質油가격을 배럴當 50센트, 中質油가격을 배럴當 25센트씩 각각 인상하고, 超輕質油가격을 배럴當 25센트 인하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油價조정은 油種間가격차를 축소하되 基準油價인 輕質油가격은 고수한다는 원칙하에서 결국 重質油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던 당연한 歸結이었으나,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油價동향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原油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여 85년 들어서자 마자 現物油價는 輕質油가격을 중심으로 대폭 하락하게

〈表－2〉 OPEC의 주요油種別 公式價格

(單位：$/B)

	85.2.1 이 후	85.1.1 ~1.31	84. 12 31이전	增 減	
	(A)	(B)	(C)	A−B	B−C
Arabian Heavy (Saudi)	26.50	26.50	26.00	0	+0.50
Arabian Medium (Saudi)	27.40	27.65	27.40	−0.25	+0.25
Arabian Light (Saudi)	28.00	29.00	29.00	−1.00	0
Murban(UAE)	28.15	29.31	29.56	−1.16	−0.25
Minas (Indonesia)	28.53	29.53	29.53	−1.00	0
Bonny Light (Nigeria)	28.65	28.00[1]	28.00[1]	+0.65	0
사우디 輸出用 原油混合價格[2]	27.33	27.80	27.58	−0.47	+0.22
OPEC 加重平均價格[3]	27.96	…	28.25	…	−0.29[4]

註：1) OPEC公式價格은 30.00달러이나 나이지리아가 독자적으로 1984년 10월 28.00달러로 인하하였음.
2) 構成比는 輕質油 40%(Arabian Light 36%, Berri 4%), 中質油 25%, 重質油 35%임.
3) 사우디아라비아 야마니 石油相의 發表値임.
4) A−C.

〈資料〉 Financial Times, Jan. 31, 1985.
Middle East Economic Survey, Feb. 4, 1985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는 사실상 공식가격제도를 포기하고 現物油價에 연동된 油價体系를 채택하였으며, 英國도 같은 압력에 처하여 이를 뒤따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油價인하압력이 팽배한 가운데서 지난 1월 28일부터 제네바에서 다시 개최된 OPEC 제73차 總會는 3일간의 격론끝에 13개 회원국중 9개국의 찬성으로 重質油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輕質油가격을 배럴當 약 1달러 인하하는 線에서 가격차를 축소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라비안 헤비油 가격을 지난 연말 50센트 인상된 배럴當 26.50달러 수준에서 유지하고, 아라비안 라이트油 가격을 종전의 배럴當 29달러에서 28달러로 인하하며, 北아프리카産 超輕質油 가격과 아라비안 헤비油 가격의 차이를 종전의 배럴當 3.75달러에서 2.40달러로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종래의 아라비안 라이트油를 代表油種으로 하던 基準油價 개념도 폐지하였다.

여기에 반대한 국가는 알제리, 리비아 및 이란 등 3개국으로 주로 輕質油생산국들이었으며, 가봉은 기권하였는데, 알제리 등 3개국은 基準油價의 인하를 반대하고, 아라비안 헤비油 가격의 대폭 인상을 통한 가격차축소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적극 반대하여 결국 타협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야마니 石油相은 이번의 油價 조정으로 OPEC原油의 加重平均價格은 84년말 잠정조치 이전의 배럴當 28.25달러에서 27.96달러로 불과 29센트 하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國際原油去來의 50% 가까이가 현물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현재의 실질적인 평균 國際原油價는 배럴當 27달러를 밑도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81년 油價가 최고 36달러까지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거의 25%나 하락한 것이다.

2. 油價下落의 배경

82년 이후 油價가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에 근본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한편 國際原油市場에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크게 보아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70년대의 급격한 油價상승으로 세계石油수요가 감소하였다는 점, 둘째 非OPEC 産油國들의 산유량이 증대하였다는 점, 세째 OPEC 국가들의 결속이 약화되어 市場狀況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1) 石油需要의 감소

세계 石油수요는 83년까지 수년 동안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OECD 통계에 의하면, 世界石油소비량은 79년의 52백만b/d에서 83년에는 44.4백만b/d로 4년간

7.6백만b/d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건 銀行의 추정치는 이 기간중의 감소량이 약 7.3백만b/d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세계石油소비량은 先進國景氣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던 84년에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OECD가 추정한 84년의 世界石油소비량은 45.6백만b/d로 전년보다 약 1백만b/d 늘어나는 데 그쳐 世界石油市場을 자극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하였다. 經濟圈別로는 선진제국에서의 소비증가율이 약 3%로 가장 높았으며, 非産油開途國에서는 소비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國別로는 선진국중 경제성장율이 높았던 美國과 日本의 소비증가율은 선진국 전체의 평균보다 높았고, 반면에 유럽諸國은 경기회복 속도가 느렸을 뿐만 아니라, 달러貨 강세로 인하여 石油輸入부담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石油수요증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율이 높았던 東아시아國家들의 소비증가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中南美국가들의 소비증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84년의 石油소비증가율은 경기회복세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84년중 OECD제국의 실질 GNP성장율은 4.75%에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石油소비증가율은 3.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중 특히 美國은 성장율이 7%에 가까웠으나, 石油소비증가율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에너지 수요의 所得彈力性을 통상 1로 보아온 점에 비추어 84년중의 石油소비증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表－4〉 OECD諸國의 實質GNP 成長率

(單位：%)

	1981	1982	1983	1984	1985
美國	2.5	− 2.1	3.7	6¾	3
日本	4.0	3.3	3.0	5¾	5
西獨	− 0.2	− 1.1	1.3	2½	2¾
프랑스[1]	0.2	2.0	0.7	1¾	2
英國[1]	− 1.5	2.5	3.2	2	3
이탈리아[1]	0.1	− 0.4	− 1.2	3	2½
캐나다	3.3	− 4.4	3.3	4¼	2¾
其他OECD	0.8	0.8	1.5	3	2½
OECD平均	1.7	− 0.3	2.6	4¾	3

註：1) GDP.

〈資料〉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 1984.

〈表－3〉 自由世界의 石油수급상황

(單位：백만b/d)

	OECD							모건銀行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79	1983	1984	1985
需	OECD소비	41.6	38.8	36.5	34.6	33.8	34.9	35.3	先進國소비	42.6	33.7	34.8	35.0
	OPEC소비	2.6	2.8	2.9	2.9	3.0	3.2	3.2	美國	19.0	15.2	15.7	15.8
	非OPEC開途國消費	7.8	7.9	7.9	7.7	7.6	7.5	7.8	유럽	14.9	19.9	12.0	12.0
	OECD在庫增減	0.7	0.4	-0.3	-0.6	-0.4	-0.2	0.2	日本	5.7	4.4	4.6	4.7
要	總需要	52.7	49.9	47.0	44.6	44.0	45.4	46.5	開途國消費	12.0	11.3	11.5	11.6
	(誤差)[1]	1.1	0.2	-0.1	0.2	0.3	0.3	0.3	消費計	53.6	45.2	46.3	46.7
									在庫증감	…	…	0.1	…
供	總供給	53.8	50.1	46.9	44.8	44.3	45.7	46.8	非OPEC生産	22.1	24.5	25.6	26.0
	OECD생산	14.7	14.8	15.0	15.5	15.9	16.4	16.6	美國	10.7	10.9	11.2	11.2
	非OPEC開途國생산	5.3	5.7	6.3	7.0	7.3	7.8	8.0	北海유전	2.0	3.0	3.4	3.5
	共産圈純輸出	1.1	1.0	1.1	1.5	1.6	1.7	1.7	멕시코	1.6	3.0	3.0	3.0
									기타開途國	4.1	4.5	5.0	5.2
給	OPEC생산	31.6	27.6	23.5	19.8	18.5	18.8	19.5	共産圈純輸出	1.3	1.7	1.9	2.1
	其他	1.1	1.0	1.0	1.0	1.0	1.0	1.0	OPEC생산	31.8	18.7	18.6	18.6

註：1) 非OECD地域의 在庫增減, 기타 統計上의 誤差 등을 반영함.

〈資料〉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 1984.
Morgan Guaranty Trust Company, World Financial Markets, Jan. 1985.

〈表－5〉에너지 構成比

(單位：%)

	總計[1]				美國				유럽				日本				開途國			
	石油	가스	石炭	기타[2]	石油	가스	石炭	기타	石油	가스	石炭	기타	石油	가스	石炭	기타	石油	가스	石炭	기타
1973	54	19	19	8	45	31	18	5	60	11	20	9	77	2	15	6	61	12	19	8
1978	53	18	18	10	47	26	18	8	56	14	19	11	74	4	13	9	59	12	19	9
1983	47	18	22	13	41	25	23	11	48	15	21	16	60	8	19	14	55	14	21	10

註：1) 共產圈 제외

· 2) 原子力 및 水力發電

〈資料〉 Morgan Guaranty Trust Company, World Financial Markets, Jan. 1985.

에너지 수요의 所得彈力性은 84년도 뿐만 아니라, 2次 石油波動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그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節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代替에너지 개발노력이 성과를 거둔 데 있다 하겠다.

그중에서도 代替에너지 개발에 의한 石油수요감소효과가 특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바, 自由世界 전체의 에너지源 중에서 石油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년의 54%에서 78년에는 53%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83년에는 47%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代替에너지源은 石炭과 原子力이었으며, 특히 유럽과 日本의 경우에는 天然가스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代替에너지 개발성과는 開途國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전체 開途國의 石油의존도는 73년의 61%에서 83년에는 55%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에너지 절약노력도 石油소비감소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바, 이는 實質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이 제1차 石油波動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온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統計求得이 가능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73년 선진국 전체의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100으로 할 때, 이는 78년에 92, 83년에 7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石油소비 자체의 감소에 더해 石油會社 또는 소비자들이 ① 공급과잉이 구조적인 현상을 띠고 있다는 시장심리 ② 앞으로도 油價가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가격전망 ③ 그리고 石油비축에 따르는 높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原油의 비축물량을 감축시켜 왔던 것도 石油수요의 위축에 또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OECD 제국의 石油備蓄수준은 79년의 3,488백만배럴에서 80년에 3,672백만배럴로 184백만배럴이 늘어난 뒤 81년부터 84년까지는 매년 평균 114백만배럴씩 감소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비축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備蓄油의 消費充當可能日數는 그다지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한편 85년중에도 石油수요량은 선진제국의 성장률이 84년보다 둔화될 전망이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石油수요의 획기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油價가 石炭, 天然가스 등 他競爭 에너지源과의 상대적인 가격으로 볼 때나 절대적인 가격면에서 볼때나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노력과 代替에너지 개발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一例로 최근에 건설되는 공장이나 주택들은 모두 에너지 효율증대에 역점을 두고 설계되고 있고, 또 자동차나 비행기 등 교통수단들도 모두 에너지 節約型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表－6〉實質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1973년 先進國평균=100)

	1973	1978	1983
先進國	100	92	79
美國	128	118	100
유럽	79	72	65
日本	77	67	53

〈資料〉〈表－5〉와 같음.

〈表－7〉 OECD제국의 石油備蓄 추이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石油備蓄量(백만배럴)	3,488	3,672	3,580	3,435	3,289	3,216	3,289
消費充當可能日數	89	100	102	103	94	91	93

〈資料〉〈表－4〉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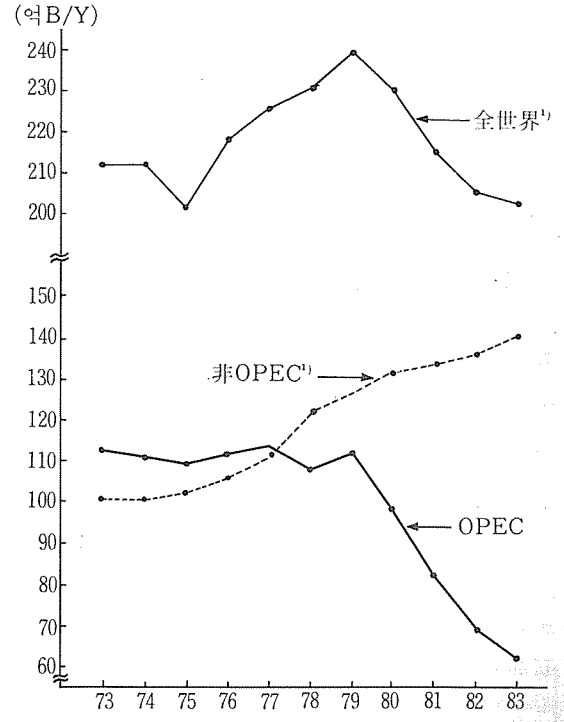
(2) 非OPEC 産油國의 공급증대

전세계 산유량에서 차지하는 OPEC의 비중은 8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히 낮아져 왔다. 70년대 중반까지 전세계의 50%를 초과하던 OPEC의 산유량비중은 78년부터 50%를 밑돌기 시작하여 83년에는 30% 수준까지 떨어진 실정이다.

84년중 自由世界의 石油소비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분도 모두 非OPEC國家의 산유량증가분으로 충당되어 OPEC의 産油量 증가는 매우 미미하였다. 반면에 非OPEC 산유국의 산유량과 共産圈 純輸出量은 84년 중에도 합계 1.1 백만b/d가 증가함으로써 지난 4년동안 4.4백만b/d나 늘어났다. 非OPEC산유국중에서도 특히 非OPEC개도국들의 산유량의 증가가 뚜렷하였는데, 非OPEC개도국들은 84년중 전년보다 0.5백만b/d가 늘어난 7.8백만b/d의 原油를 생산하였다. OECD지역에서는 北海油田의 산유량이 전년비 0.4백만b/d 늘어난 3.4백만b/d, 그리고 美國의 산유량도 83년보다 0.3백만b/d 늘어난 11.2백만b/d를 각각 기록하였다. 또한 共産國家들의 對西方 石油純輸出量도 8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共産圈國家는 70년대에만 하더라도 對西方 石油輸出能力이 곧 한계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어 85년쯤부터는 石油純輸入國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84년중 이들의 對西方 純輸出量은 1.9백만b/d로 79년에 비하면 거의 50%나 증가하였다.

앞으로 非OPEC諸國의 산유량과 共産圈의 對西方 수출능력은 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非OPEC의 산유량증가가 自由世界의 石油수요증가분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非OPEC 지역의 産油量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는 까닭은 OPEC을 제외한 3大 産油지역인 美國, 北海유전 및 멕시코가 모두 장래 산유량 증대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특히 美國과 英國의 산유량은 수년내로 한계에 달하여 그 후로는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非OPEC 自由地域內에서 최대규모인 486억배럴의 原油매장량을 갖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는 OPEC의 긴밀한 협조자로서 수출물량의 자율규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2〉 그룹別 産油量 추이



註：1) 共産圈 包含.

(3) OPEC내부의 問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世界石油市場에서 차지하는 OPEC의 점유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있다. 시장점유율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OPEC의 카르텔로서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러

한 면에서 일부에서는 OPEC의 붕괴가능성까지도 예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들이 OPEC의 결속을 위협하고 있다. 첫째는 國別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OPEC국가가 막대한 遊休生産能力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겪고 있는 재정문제의 심각성, 세째는 점점 더 尖銳化되어가고 있는 OPEC내부의 정치적 分裂相이다.

OPEC의 정상적인 산유능력을 28.2백만b/d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誌의 추정치)로 볼 때, OPEC의 遊休生産能力은 산유능력의 36% 수준에 달하는 10백만b/d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84년 自由世界 總石油소비량의 약 20%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遊休産油能力의 약 60%가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 아라비아반도의 4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는 그 자체로서만 전체 OPEC 遊休産油能力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유휴산유능력으로 인한 문제는 만약 이란-이라크 전쟁이 종료된다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더우기 이라크의 경우는 戰爭終了와는 관계없이 현재 추진중인 原油輸出 파이프라인 공사가 86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原油수출능력이 현재보다 약 1백만b/d나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때 OPEC 회원국간 産油 쿼터 조정문제가 다시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82, 83년 두 해 동안 각각 150억달러 및 180억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던 OPEC 전체의 경상수지는 84년중 약 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石油輸出收入이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경상수지개선은 輸入의 계속적인 감축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OPEC국가는 경제개발이나 사회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재정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의 감축은 결국 財政支出의 억제를 뜻하게 된다. 그러나 OPEC국가중에서도 재정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인구가 적고 1인당 石油매장량도 막대한 규모의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및 카타르 등 아라비아반도의 4개국은 재정문제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편이고, 나머지 9개국은 인구가 많고 또 대부분 많은 외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알제리 및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는 특히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81년 이래 이들 국가는 높은 外債利子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외채상환이나 國際金融市場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밖에 이란과 이라크와 같은 나라는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戰費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이다. 84년중 이들 나라는 강력한 수입억제를 통하여 경상수지적자폭을 크게 축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對外支給準備資産은 오히려 줄어들고 외채규모는 더욱 증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지난 4년간 경제성장율은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계속적인 수입억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석

〈表-8〉 OPEC의 經常收支 추이

(單位 : 억달러)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貿易收支	400	1,140	1,680	1,250	630	460	620
輸出	1,440	2,180	3,020	2,790	2,180	1,800	1,890
輸入	1,040	1,040	1,340	1,540	1,560	1,340	1,270
貿易外收支 民間移轉收支	— 390	— 460	— 540	— 720	— 760	— 620	— 580
公的移轉收支	—20	—30	—20	—20	—20	—20	—20
經常收支	—10	650	1,110	510	— 150	— 180	20

〈資料〉〈表-4〉와 같음.

〈表－9〉 OPEC제국의 주요 石油關聯指標

	면 적 (천㎢)	인 구 (백만명) 1983	石油確認埋藏量 (백만배럴) 1984	1인당 石油埋藏量 (배럴) 1984	産油能力 (천b/d) 1984	OPEC 産油쿼타 (천b/d) 84. 11. 1이후	産油量 (천b/d) 1984
사우디아라비아	2,150	10.10[1]	169,000	16,900	9,000	4,353	4,645
쿠 웨 이 트	18	1.67	90,000	53,892	1,700	900	925
U A E	77	1.21	32,490	26,851	2,160	950	1,142
카 타 르	10	0.28	3,350	11,964	600	280	404
이 란	1,648	41.64	48,500	1,165	3,500	2,300	2,166
이 라 크	435	14.11	44,500	3,154	1,300	1,200	1,218
리 비 아	1,760	3.22[1]	21,100	6,553	1,700	990	1,090
알 제 리	2,382	20.50	9.000	439	900	663	608
가 봉	267	1.11[1]	510	459	200	137	150
나 이 지 리 아	924	89.02	16,650	187	2,200	1,300	1,414
인 도 네 시 아	1,905	156.67[1]	8,650	55	1,700	1,189	1,332
베 네 수 엘 라	912	16.39	25,845	1,577	2,400	1,555	1,724
에 콰 도 르	281	9.25	1,400	151	270	183	254
計	…	…	…	…	28,230	16,000	17,072

註：1) 1982년.

〈資料〉 IFS, Jan. 1985, Oil & Gas Journal, Dec. 31, 1984 및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Jan. 21, 1985에 의거 작성.

유수출을 늘리거나,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OPEC 協定을 위반하여 油價의 할인판매나 産油 쿼터의 초과생산 등을 할 만한 충분한 誘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10월 油價를 獨自的으로 인하한 바 있다.

한편 막대한 외화자산을 축적해 놓고 있고 對外債務부담도 없는 아라비아반도의 4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재정문제를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는 OPEC內에서 世界石油수급상황에 맞춰 산유량을 조절하는 이른바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산유량감축으로 인한 經常收支赤字幅도 커서 83년의 경우 경상수지적자는 무려 184억달러에 달하였으며, 84년에는 약 100~150억 달러로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적자규모는 사우디 아라비아 총수출액의 20%, GDP의 10%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라비아반도 4개국들은 그동안 막대한 外貨資産을 축적해 놓았으므로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국제수지악화는 견디어 낼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서 산유량감축을 감수할 것인지는 OPEC나 非OPEC를 불문하고 餘他 산유국들이 얼마나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Ⅲ. 油價하락의 영향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서 볼 때 향후 油價는 현재와 같이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DRI, WEFA 또는 OECD 등 主要經濟豫測機關들은 최소한 86년까지는 油價가 84년 수준 또는 그 이하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모건 銀行은 향후 油價의 움직임에 관하여 몇가지 가능한 경우를 전제하고 이를 따른 각각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을 전망한 바 있는데,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건 銀行은 먼저 향후 油價의 움직임을 첫째 油價가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 둘째 油價가 완만한 하락세를 示顯하는 경우, 세째 油價가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의 세가지로 가정하고 있다. 두

〈表－10〉 主要機關別 油價展望

(單位：$/B)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WEFA	29.90	29.17	29.23	29.22	32.16	34.85
DRI	29.56	28.62	28.62	28.65	30.64	…
OECD	29.35	28.56	28.40	…	…	…

〈資料〉 1) WEFA, DRI는 石油協會報 1984년 12월호 p.34에서 전재.
2)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 1984.

번째의 가정과 세번째의 가정이 실제로 실현되는 경우 모두 80년대말부터는 油價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두번째의 경우는 상승세도 완만히 이루어져 90년경의 油價가 名目價格 기준으로 현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세번째의 경우는 85, 86년의 油價폭락으로 새로운 石油波動이 초래되어 90년까지 油價는 배럴當 37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 名目油價가 계속 현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OECD제국의 경기회복은 그 속도가 현재보다 다소 둔화되는 선에서 완만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중 美國은 83, 84년의 높은 성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및 재정의 긴축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타국보다 成長둔화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제금리는 현재의 수준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나 10%臺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에 따라 달러貨도 비교적 강세를 계속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油價가 완만한 하락세를 계속할 경우 OECD제국의 경제성장율이나 인플레이션率은 모두 油價가 현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良好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제금리도 첫번째 경우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고, 달러貨 역시 油價의 현수준 維持時보다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로 인하여 유럽제국의 경제가 자극되어 西歐제국의 성장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油價는 88년경부터 名目價格으로는 다시 상승하겠지만, 實質價格기준으로 84년 수준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85～87년중의 油價 하락에 영향을 받아 OECD제국은 3%臺의 안정된 성장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表－11〉 모건銀行의 油價동향에 따른 經濟전망

	84推定値	Ⅰ：油價현상유지				Ⅱ：油價완만하락				Ⅲ：油價폭락			
		85	86	87	88～90[1]	85	86	87	88～90[1]	85	86	87	88～90[1]
平均油價(US$/B)	28.5	28.5	28.5	28.5	28.5[2]	25.0	23.0	23.0	28.0[2]	18.5	18.5	22.0	37.0[2]
OECD實質成長率(%)	4.5	3.0	2.0	2.0	2.5	3.5	3.0	2.8	3.0	4.0	2.0	3.0	2.0
美國	6.8	3.2	1.8	1.8	2.1	3.6	3.0	2.5	3.0	4.0	1.5	3.0	1.6
유럽	2.5	2.5	2.0	2.0	2.3	2.8	2.8	2.5	2.8	3.0	2.0	2.5	2.0
日本	5.5	4.0	3.0	3.0	4.0	4.0	4.0	4.0	4.0	5.0	3.5	4.5	3.8
OECD工産品物價上昇													
自國通貨表示(%)	3.5	4.5	5.0	4.0	5.5	3.0	4.0	4.5	5.0	2.5	2.5	4.0	7.0
달러表示(%)	-3.4	3.5	8.0	4.0	5.5	1.5	7.0	6.0	5.0	4.0	7.0	7.0	7.0
달러換率變動(%)[3]	7.1	2.0	-5.0	0.0	0.0	2.0	-5.0	-5.0	0.0	-3.0	-7.0	-5.0	0.0
6M유로달러LIBOR%	11.2	10.5	10.0	10.0	10.0	9.5	9.0	9.0	9.0	8.0	7.0	7.0	11.0

註：1) 연평균 數値임.
2) 1990년 價格基準.
3) 名目實效換率임. 마이너스 부호는 평가절하를 나타냄.
〈資料〉〈表－5〉와 같음.

마지막으로 油價가 85년중 배럴當 10달러나 급락하여 18달러 선까지 떨어진 다음 그후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세번째 케이스에 있어서는 먼저 世界經濟도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처음 2년간의 油價急落은 인플레이션率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고, 경기도 크게 자극하여 경제성장율도 높게 될 것이지만, OPEC 등 産油國의 財政難은 더욱 심화되고 일부 산유국에서는 정치불안 등 내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화당국은 금융긴축정책을 이 기간중 완화하게 될 것이므로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달러貨의 약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景氣過熱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加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石油시장의 불안이 顯在化될 경우 80년대말경 第3의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어 油價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OECD제국은 緊縮政策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고 그 결과 세계경제는 低成長과 高인플레이션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Ⅳ.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世界石油市場은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대표되는 不均衡狀態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기간내에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 역시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世界石油市場을 지배해 왔었던 OPEC가 80년대에 들어와 오히려 산유량감축을 통한 油價하락방지에 급급하고 있으나, 非OPEC産油國의 산유량 급증으로 OPEC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PEC 자체가 안고 있는 회원국들의 심각한 재정난 등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OPEC의 油價방어노력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

지난 70년대의 油價폭등으로 80년대에 들어 石油수요는 전세계적으로 감소추세를 걸어왔고,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84년의 石油수요가 처음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였다고는 하나 그 幅은 경기회복에도 크게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현재의 石油價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아직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노력과 代替에너지개발노력 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石油수요도 향후 단기간내에 있어서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油價는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油價의 하락은 세계경제에 플러스的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막대한 外貨를 石油輸入에 충당하고 있는 非産油開途國의 경우에는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油價의 급격한 하락은 또 한차례의 石油危機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石油市場의 안정은 油價의 하락 못지 않게 세계경제를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

〈韓國輸出入銀行 · 주간輸銀뉴스〉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크고 나라큰다